

19세기 남중국해 해적과 관군의 전투 기록*

— 袁永綸의 『靖海氛記』를 중심으로

김경아**

【목 차】

1. 들어가며
2. 작가 원영륜과 『정해분기』의 판본, 영역본
3. 『정해분기』의 내용
4. 『정해분기』의 특징과 의의
5. 나오며

【초록】

청대 袁永綸이 쓴 필기 『靖海氛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중국 남부 해상에 창궐하던 해적을 토벌한 기록이다. 중국의 역사 사료 중 『정해분기』 만큼 해적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은 드물다. 안타깝게도 1830년에 초판이 출간된 후, 중국에서는 유실되어 전하지 않다가, 2007년 대영도서관에서 판본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정해분기』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작가 원영륜과 『정해분기』의 판본, 영역본을 소개하고, 『정해분기』의 내용을 해적단의 형성과 세력 확장, 분열과 투항이라는 흐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그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靖海氛記, 袁永綸, 해적, 장보자, 정일수, 광둥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shun7ziran@naver.com)

1. 들어가며

청대 袁永綸이 쓴 필기 『靖海氛記』는 1830년 廣東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세기 초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떨쳤던 6개 해적단의 연맹 과정과 그들의 세력 확장에 따른 관군과의 대립, 그리고 해적 연맹의 분열과 조정에 투항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당시 광동의 巡撫나 總督이 조정에 올린 주첩에도 당시 해적의 노략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규모, 관군이 죽인 해적 수나 파괴한 해적선 수 등에 관한 정보가 등장하지만, 이러한 기록은 단편적인 정보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통계 수치가 과장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광동의 해안지역에서 간행된 지방지는 주로 지역적 관점에서 해적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정해분기』는 광동 지역에서 소규모 해적 집단이 연맹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또 와해 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6개 해적단의 핵심 인물과 본거지, 해적단별 활동 영역의 구분, 해적집단의 운영 체계, 약탈을 통해 획득한 수입의 분배와 관리,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어, 19세기 초 중남해 해적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재밌는 점은 이 책이 1830년 광동에서 출간한 지 불과 1년 만에 영국 런던에서 영역본이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번역자 Karl Friedrich Neumann¹⁾은 1830년 중국 광주에 머물렀다가 1831년에 귀국하는데, 노이먼은 광주에서 돌아오자마자, 'History of the Pirates who Infested the China Sea from 1807 to 1810' 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한다. 바로 『정해분기』를 영역한 것이었다. 이 책은 부록(Appendex)으로 동인도회사 소속의 Richard Glasspole이 1809년 9월 중국 해적에게 납치된 후,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기까지 약 석 달간 해적선에서 해적들과 함께 생활했던 경험을 기록한 글을 함께 실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정해분기』는 중국 광동과 영국 런던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간행되었다. 당시 광

1) Neumann은 독일 바이에른 주 출신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훗날 천주교로 개종한 후, 출생 관련 기록이 훼손되었다. 본인의 추정에 따르면, 1792~1795년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노이먼은 1830년 동인도회사의 상선을 타고 마카오를 거쳐, 광주에 도착했다. 당시 외국인 중 상인이나 선교사가 아닌, 순수 학문적 목적으로 중국 땅을 밟은 지식인은 매우 드물었는데, 노이먼은 광주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접촉하며 학문적 교류를 나누었고, 1831년 2월 중국에서 구입한 12,000권의 희귀본과 근대 문헌을 실고 귀국했다. 그리고 1833년부터 1852년까지 뮌헨대학 중국어, 아르메니아어 및 국정학, 민족학 교수를 역임했다. 노이먼의 생애와 업적에 관해서는 英格麗德·呂克特 著, 劉梅 譯, 「“稀有而價值連城的中文文獻資料”——巴格利亞國家圖書館中文書籍館藏的創建者: 卡爾·弗裏德裏希·諾依曼」, 『國際漢學』, 第2期, 2012, pp.132-156. 참조.

주에서 간행된 지방지나, 동시대 문인의 저작 등에서 해적에 대해 기술할 때 이 책의 내용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면, 책 출간 후의 과급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영역본이 서양의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에게 중요한 사료로 주목받는데 비해, 광둥에서 간행된 『정해분기』는 안타깝게도 중국 국내에서 유실되어 전해지지 못했다. 1971년, 홍콩의 저명한 역사학자 葉靈鳳은 홍콩지역에서 활약했던 해적장보자에 대한 연구서에서 『정해분기』를 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러다 2007년 蕭國健이 대영도서관의 도서목록에서 ‘Tsing hae fun ke’ (영문명 ‘An Accoun of the Suppression of Piracy’ in the Canton Waters)를 발견한다. 바로 중국에서 유실된 『정해분기』 판본이었다. 蕭國健은 원문에 표점과 주석을 달고, 등장인물에 대한 보충 사료와 영인본 등 총 5편의 자료를 묶어 발표하였다.²⁾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국이나 한국의 학계에서 『정해분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해분기』는 영역본을 통해 해외에 더 잘 알려졌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Dian H. Murray는 청대 해적 연구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녀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중남해 지역 해적에 대한 중국 관방 자료와 서양의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했고, 10여 년에 걸친 연구 결과 ‘Pirates of the South China coast, 1790-1810’을 발표한다. 이 책은 청대 해적 연구의 필독서로 삼을 만하다.³⁾ 그리고 그녀의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문헌 중 하나가 바로 『정해분기』이다. 중남해 지역의 해적은 서양에 악명을 떨쳤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해분기』의 영역본은 서양에 널리 알려졌다. 1935년 Jorge Luis Borges의 『불한당들의 세계사』⁴⁾에 등장하는 중국 여해적 이야기는 바로 흥기방의 우두머리 鄭一嫂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동안 학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정해분기』의 작가, 판본,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닌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정해분기』에 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19세기 남중국해 해적의 출신성분이나 생활상, 조직 체계, 종교 제의, 청 왕조의 해상전략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

2) ‘Tsing hae fun ke’는 제목의 광동발음이다. 『정해분기』의 발굴과정과 판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蕭國健·葡永堅, 「[清]袁永綸『靖海氛記』箋註專號」, 『田野與文獻』: 華南研究資料中心通訊, 第46期, 2007. pp.6-7. 참조.

3) Dian H. Murray, *Pirates of the South China coast, 1790-181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이 책은 중국과 한국에도 각각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중] 穆黛安, 劉平譯, 『華南海盜 1790-1810』,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한] 다이앤 머레이, 이영옥 역, 『그들의 바다: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심산, 2003.

4) 보르헤스의 단편 소설집으로 원제는 *Historia universal de la infamia*이다. 그중 제4권이 ‘여 해적 과부 칭(La viuda Ching, pirata)’(1933년)으로 『정해분기』에 등장하는 과부 정일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국에는 ‘불한당들의 세계사’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보르헤스, 황병하 역, 『불한당들의 세계사』, 민음사, 1994.

한다.

2. 작가 원영륜과 『정해분기』의 판본, 영역본

1) 작가 원영륜

작가 원영륜의 생몰연대나 그의 가족관계, 직업, 또 다른 저술서의 유무 등 현재까지 작가 연구는 모두 공백으로 남아 있다. 선행연구자 중 葉靈鳳은 원영륜의 직업이 兩廣總督 百齡의 ‘막우’, ‘막료’라고 했으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⁵⁾ 蕭國健은 원영륜과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던 황안 출신의 원씨 가문 족보에서 비슷한 인물 3인을 찾아냈으나, 실제로 이들이 원영륜과 어떤 관계인지 밝히지는 못했다.⁶⁾ 그 외 저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嶺南兒科學發展簡史』란 글에서 광둥에서 출간된 의학서적 중 ‘순덕 원영륜’이 쓴 『痘科指迷』가 언급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⁷⁾ 하지만 『두과지미』를 쓴 사람이 과연 『정해분기』의 작자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고증이 필요하다.

현재 작가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정해분기』에 실려 있는 단편적인 것들 뿐이다. 예를 들어, 책의 凡例에 ‘瀛仙謹識’이라는 서명이 있어, 작가의 자가 ‘영선’임을 알 수 있고,⁸⁾ 또 책에서 해적들에게 피해를 입은 順德과 番禺 지역을 서술할 때, 자신의 고향이 順德현에 속하는 橫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⁹⁾ 하지만, 『정해분기』는 자서전이 아니고, 작가 또한 서술 과정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그다지 노출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그의 글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5) 葉靈鳳, 「張保仔的傳說和真相」, 載『葉靈鳳文集』, 第3卷, 『香港掌故』, p.535, p.583.

6) 蕭國健이 찾아낸 인물은 袁萃岡(도광12년(1832) 거인), 袁永彝(도광17년(1837) 거인), 袁誕勳(도광19년(1839) 거인)이다. 蕭國健·荀永堅, 「[清]袁永綸袁永綸『靖海氛記』箋註專號」, 『田野與文獻: 華南研究資料中心通訊』, 第46期, 2007, p.7.

7) 이 글은 廣東省人民政府 홈페이지에는 2007년 9월 25일에, 廣東文化網에는 2008년 8월 25일에 게시되었다. 둘 다 동일한 문장이며, 글쓴이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글이 게시된 사이트 정보는 아래 링크 참조.

廣東省人民政府 www.gd.gov.cn/gdgk/lmwh/lmzy/200709/t20070925_21066.htm [2021.02.19]

廣東文化網 www.gdwh.com.cn/lmwh/2008/0825/article_82.html [2021.02.19]

8) ‘凡例’는 책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작가가 내용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미리 일러둘 내용을 썼다. 총 5가지 내용인데, 모두 一로 구분해 적어놓았다. ‘謹識’는 이름 뒤에 쓰는 것으로, ‘○○○謹識’는 ‘○○○ 삼가 씀’으로 풀이할 수 있다.

9) “予鄉橫岸屬順德, 故於番、順之被賊也頗詳.” 袁永綸, 『靖海氛記』(上卷), 道光17年刻本, p.15a.

위에서 보다시피, 현재까지 작가에 대해 밝혀낸 연구성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려준다. 적어도 작가 원영륜이 당시 지배계층에 속한 관리나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향신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해분기』가 담고 있는 자료는 결코 무명의 지식인이 혼자 힘으로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작가는 편년체의 서술방식을 차용해 베트남의 정세, 광동의 지리적 특성, 해적단의 습성, 관군과 해적의 공격방식, 지역의 피해 상황, 해적단을 상대로 한 조정의 해상전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동 연해 해적단의 흥망성쇠를 종적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능력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정해분기』를 쓸 수 있었을까?

광서연간에 간행된 『廣州府志』卷91 ‘藝文略’을 보면,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史類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정해분기』2권, 순덕의 원영륜이 采訪冊에 근거해 썼다’는 기록이 있다.¹⁰⁾ 여기서 우리는 ‘채방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방책’은 ‘征訪冊’, ‘采訪資料’, ‘采訪稿’, ‘采訪錄’이라고도 한다. 이는 관방에서 地方志¹¹⁾ 편찬 규정에 맞추어 현지 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엮어낸 자료성 문헌으로, 정식으로 지방지를 편수하기에 앞서 하부 지방지 편찬기구가 상위 기구에게 송달하는 지방지의 초고 개념이라 할 수 있다.¹²⁾ 즉, ‘채방책’은 해당 지역에 관한 정보가 망라된 문건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평범한 문인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작가 원영륜이 관리나 향신이 아니고, 과거의 공명을 이루지도 못했지만, 적어도 관방의 기록물에 접근 가능한 지위를 가진 자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해분기』에는 작가에 관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을까? 사실 『정해분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긴 하지만 작가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정해분기』의 서문을 쓴 蘇應亨과 何敬中을 살펴보자.

소응형은 壁江 출신으로, 그가 속한 가문은 역대로 거인과 진사를 대거 배출한 지역 명문이었다. 소씨 또한 가경13년(1808) 恩科에 급제해 거인이 되는데, 『廣東通志』卷81 ‘選舉表’에 ‘蘇應亨 順德縣(廣州府)’이라는 기록이 있다.¹³⁾ 하지만 이후 향시 이

10) “靖海氛記二卷，國朝順德袁永綸撰，據采訪冊。”李光廷·史澄纂，蘇佩訓·戴肇辰修，『廣州府志·藝文略』，光緒五年(1881)刻本，卷91，p.2b.

11) 地方志는 줄여서 方志라고도 한다. 한 지역의 지리, 역사, 인물, 산업, 자연생태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청 조정은 각 省, 縣에 지방지 편찬 부서를 따로 설치했고, 주기적으로 지방지를 편찬하도록 명령했다. 대체로 60년을 주기로 지방지가 찬수되었다.

12) 채방책에 관해서는 王慧, 「現存誌料、采訪冊、調查記等文獻概述」, 『學術探索』, 第7期, 2014, pp. 107-108 참조.

상의 성적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생평에 대해 알려진 바도 적다.¹⁴⁾ 그리고 서문에는 작가와의 구체적 관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경중에 관한 자료는 더 적다. 그에 관한 유일한 흔적은 道光3년(1823) 광주부 도교묘의 석각에 남아 있는 「無題碑」이다.¹⁵⁾ 다만, 서문에서 자신의 고향이 己巳년(1809)년 해적들의 노략질로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였다고 자술한 것으로 보아, 하경중은 광주부에 편입된 지역 출신이고, 원영륜과 어려서 함께 수학한 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사람이 쓴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서문을 청탁받게 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蘇應亨 敘	後館於橫浦, 袁子永綸手一篇示余, 且請為序. 余覽其書, 則『靖海氛記』也. (훗날 횡포에서 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영륜이 나에게 글 한 편을 보여주고 서문을 부탁했다.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 바로 『정해분기』였다.)
何敬中 序	歲庚寅, 余客館省垣, 袁君永綸出所手編『靖海氛記』示余, 屬為序. (경인년(1830), 내가 관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원영륜이 손으로 엮은 『정해분기』를 나에게 보여주며, 서문을 부탁했다.)

위의 서문에서 진하게 밑줄 친 표현에 주목해 보자. 원래 館이나 客館은 손님을 접대하거나 손님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는 둘 다 동사로 쓰였고, 뒤에 오는 지역명 橫浦와 장소명 省垣이 보어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횡포에 묵었다’거나, ‘성환(즉, 행정기관이 있는 곳)에 기거했다’로 해석할 수 있으나, 만일 화자가 막우였다면 이 문장은 ‘횡포에서 막우로 있었다’와 ‘성환의 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청대는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요소가 맞물리면서 막우라는 직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막우는 관리가 부임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방 행정에 필요한 법률, 경제, 호구, 치수, 지방지 편찬 등 제방면의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고용한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그들을 채용한 관리가 마련한 숙소 혹은 관서에서 집단생활을 했다.¹⁶⁾ 막우는 형식상으

13) 阮元, 陳昌齊等纂修, 『廣東通志』(卷81), 道光二年(1822) 刻本, p.33b.

14) 미국 학자 魏白蒂는 阮元의 학술적 성과를 연구하면서, 그가 학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막우와 지식인의 명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 중 완원과 교류했던 지식인 중 소응형의 이름이 확인된다. 다만, 이름 외 다른 정보는 찾을 수 없다. [美] 魏白蒂(Betty Peh-T'i Wei), 「《四庫全書》纂修外一章: 阮元(1764-1849)如何提挈與促進嘉道時代的學術研究」, 『兩岸四庫學——第一屆中國文獻學學術研討會論文集』, 臺灣學生書局, 1998, p.39

15) 하경중이 武帝古廟(沙灣)에 쓴 「無題碑」가 남아 있다. 黎志添·李靜, 『廣州府道教廟宇碑刻集釋上集』(40-5), 中華書局(香港), 2013, p.691.

로는 관리가 행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초청한 것이므로, 예를 갖추어 幕賓, 西賓으로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우는 봉건 왕조의 지배관리 시스템 안에 편입된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고, 그들을 고용한 관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고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무지의 이동 또한 상당히 잦았다. 따라서, 막우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할 때 某지역의 관서에 있다거나, 막우로 있다는 등의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위의 서문처럼 館이나 客館, 혹은 客을 동사로 쓰고, 그 뒤에 지역명이나 관서를 표기해 자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지를 나타내기도 했다.¹⁷⁾

물론 위의 두 사람이 막우가 아닐 수도 있다. 설령 그들이 막우라고 해도, 그것이 작가 원영륜도 막우였다는 결론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정해분기』는 관방의 자료인 ‘채방책’을 저본으로 삼고, 전투에 참여했던 관리의 생생한 진술도 참고했다.¹⁸⁾ 기록의 사실성으로 보면, 역사서에 버금가는 고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 원영륜이 막우 신분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원영륜의 신분은 아직 가설단계이지만, 향후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정해분기』의 판본과 영역본

『정해분기』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광둥 지역의 해적들이 소규모 집단에서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군함과도 전투를 벌일 만큼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과정과 그들이 청 조정에 투항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매우 중요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정해분기』가 가진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 문헌이 중국에서 유

16) 청대 막우에 대해서는 김정아, 『청대 막우와 소설』, 세종출판사, 2015, pp.13-14. 참조.

17) 이러한 표현은 청대 막우가 저술한 책에서 상당히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許奉恩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평생을 막우로 떠돌았는데, 여러 지역의 관리에게 고용되어, 각 지역의 관서를 떠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거나 관서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필기 소설 『里乘』을 썼다. 그의 글을 보면, 이야기의 출처를 밝힐 때, “予館於署中, 親為予言之.”, 혹은 “予客灤州, 冬夜~ 各述先德”처럼 館이나 客의 뒤에 지명이나 장소를 써서 자신이 근무하던 관서를 나타내었다. 樂鈞 역시 오랫동안 막우로 근무하면서 쓴 글들을 모아 『耳食錄』을 출판한다.道光원년에 이 필기소설을 증각하면서 쓴 자서를 보면 자신이 劉芙初, 陸祁孫, 金手山 등과 曾侍郎의 西淮官署에서 막우로 있었다고 회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客’을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 위의 예시는 許奉恩, 『里乘』, 齊魯書社, 1988, p.30, p.55와 樂鈞, 『重刻耳食錄序』, 『耳食錄』, 齊魯書社, 2004, p.3. 참조.

18) 가경13년 7월 호문 총병 林國良과 홍기방 장보자간의 치열했던 전투 기록은 전투에 참가했던 黃英揚이 저술한 내용을 참고로 했다. 원문은 주석 49) ① 참조.

실되었었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정해분기』의 판본은 대영도서관에 소장 되어 있다. 대영도서관의 소장 목록에 따르면 『정해분기』는 두 가지 판본이 있다.¹⁹⁾ 첫 번째 판본은 표지 우측에 세로로 ‘道光十年夏月鐫’ 쓰여 있고, 그 아래쪽에 좀 더 작은 글씨로 2행에 나누어 ‘羊城上苑堂發兌’라고 적혀 있다. 이 책이道光10년(1830) 여름에 간행되었고, 廣州에 위치한 상원당에서 출판된 것을 알 수 있다.²⁰⁾ 그리고 정 중앙에 세로로 ‘靖海氛記’가 큰 글씨로 쓰여 있고, 좌측에 세로로 ‘丁酉年新續 碧蘿山房藏板’이라 적혀 있다. 정유년은道光17년(1837)이다. 따라서, 이 책은道光10년에 초판이,道光17년에 속판이 나왔고, 벽라산방이 장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가 바로道光17년에 간행된 것이다. 두 번째 판본은 출간 장소나 연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제목도 다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지 우측에 세로로 작게 ‘곽과대 항복서 수록[內附載郭婆帶呈詞]’²¹⁾이 적혀 있고, 정중앙에 세로로 2행에 나누어 ‘장보자투항신서[張保仔投降新書]’란 제목이 크게 쓰여 있다. 그리고 표지 상단을 보면, 작은 글씨로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정해분기’가 가로쓰기 되어 있다. 비록 제목은 ‘장보자투항신서’로 바꾸었으나, 그 내용은 『정해분기』와 동일하다.

그 외, 『정해분기』는 2종의 영역본이 있다. 1849년 광둥에서 출판된 *THE CHINESE REPOSITOR*²²⁾를 보면, 중국의 문학작품 목록을 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해분기』의 영역본에 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1831년 노이먼이 *History of the Pirates who Infested the China Sea from 1807 to 1810*이란 제목으로 영국 런던에서 출판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1838년 John Slade가 *A Record of the Pacification of the Seas*란 제목으로 번역해, 1838년 2월20일부터 *The Canton Register*(간행물)에 시리즈로 게재한 것이다. 위의 중국 판본 2종과 영역본 2종의 출판 연도와 제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 대영도서관이 『정해분기』를 소장하게 된 과정과 전자목록에 기재된 두 판본에 대한 자세한 비교연구는 다음의 논문 참조. 蕭國健·葡永堅, 「〈乙〉『靖海氛記』原文標點及箋註」, 『田野與文獻: 華南研究資料中心通訊』, 第46期, 2007.01. pp.6-8.

20) 鐫은 새긴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간행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주는 광동성의 성도이고, ‘羊城’은 광주의 별칭이다. 984년에 편찬된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에 唐代的 『續南越誌』를 언급했는데, ‘다섯 선인이 다섯 빛깔의 양을 타고 내려와서, 각각 곡식 한 줄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다(有五仙人騎五色羊, 各持谷穗一莖, 以遺州人)’고 한다. 이 전설로 인해 예로부터 광주를 ‘五羊城’ 혹은 ‘羊城’ 등으로 부른다.

21) 郭婆帶는 해적단 중 흑기방 두목으로 홍기방의 장보자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조정에 투항한 인물이다.

22) 이 책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중국의 역사와 문화, 시사, 문서 등을 알리기 위해 1832년 5월부터 1851년 5월까지 광둥에서 발행된 정기 간행물이다. 이 간행물에 『정해분기』 영역본에 대한 소개가 있다. Elijah Coleman Bridgman, ‘*THE CHINESE REPOSITOR* Y’(VOL. XVIII), Canton:Printed for the proprietors, p.414.

	언어	출판연도	제목	작자/역자
1	중문	1830 (1837重刊)	靖海氛記	袁永綸
2	중문	?	張保仔投降新書	?
3	영문	1831	<i>History of the Pirates who Infested the China Sea from 1807 to 1810</i>	Karl Friedrich Neumann
4	영문	1838	<i>A Record of the Pacification of the Seas</i>	John Slade

『정해분기』의 경우 판본 정보가 명확하지만, 『장보자투항신서』는 판본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두 판본을 비교하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삽화의 유무이다. 『장보자투항신서』는 등장인물 중 霍紹元²³⁾, 黃標²⁴⁾, 장보자의 모습을 그린 삽화 3점이 실려 있지만, 『정해분기』는 삽화가 전혀 없다. 둘째는 분량의 차이이다. 두 판본이 대체로 비슷하나, 『정해분기』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장보자투항신서』에 없는 69자가 더 추가되어 있다. 蕭國健은 『정해분기』에 추가된 69자가 1830년 초판에 없었으나 정유년에 속간할 때 추가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장보자투항신서』가 『정해분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⁵⁾ 하지만 이는 잘못된 추론으로 보인다. 아래 『정해분기』와 노이먼 영역본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자.

天子冊功, 晉兩廣總督百齡太子少保、賜雙眼花翎、給輕車都尉世襲。諸將論功行賞有差, 張保陞授守備, 東海伯等悉恩赦遣歸。自此, 往來舟楫, 共慶安瀾, 四海永清, 民安物阜矣。(천자께서 책봉하시길, 양광총독 백령을 太子少保에 임명하셨고, 쌍안화령을 하사하셨으며, 경차도위의 세습을 허락하셨다. 모든 장수들이 공적을 헤아려 상을 달리 받았고, 장보는 수비직을 제수받았으며, 동해백 등은 모두 은사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때부터 배들이 왕래하였고, 모두 태평한 세상을 좋아했으며, 사해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물산이 풍성하게 되었다.)²⁶⁾

By an edict of the "Son of Heaven," the Governor-general of *Kwang tung* and *Kwang se Pih, ling* was recompensed for his merits. He was created a secondary

23) 그림의 우측에 세로로 '霍紹公像'이라고 쓰여 있는데, 해적 장보자가 남해 瀾石을 침략했을 때, 향민을 조직해 해적과 싸우다 전사한 감생 霍紹元을 그린 그림이다. 삽화에는 '元'자가 빠졌다.

24) 『정해분기』에서는 黃標를 王標로 오기했다.

25) 두 판본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논문 참조. 蕭國健·荀永堅, 「[清]袁永綸『靖海氛記』箋註專號」, 『田野與文獻』: 華南研究資料中心通訊, 第46期, 2007.01. p.7.

26) 袁永綸, 『靖海氛記』(下卷), 道光17年刻本, p.25a

guardian of the Prince, allowed to wear peacock's-feathers with two eyes, and favoured with an hereditary title-The services of the different officers and commander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y received adequate recompenses. *Chang p-
-aou* was appointed to the rank of Major; Tung hae pa, or, the Scourge of the eastern sea, and all others, were pardoned, with the permission

to retire wherever they wished. From that period till now ships pass and repass in tranquillity. All is quiet on the rivers, the four seas are tranquil, and people live in peace and plenty.²⁷⁾

노이먼의 영역본은 1830년 출판된 『정해분기』 초판을 기초로 번역된 것이다.²⁸⁾ 그런데 영역본을 보면, 1837년 속판의 내용이 모두 빠짐없이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69자의 유무로 『장보자투항신서』가 1837년 보다 일찍 출판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蕭國健선생의 가설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837년 판본은 1830년 초판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정확한 차이점은 두 가지를 자세히 비교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거칠게나마 살펴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부록의 차이이다. 1837년 『정해분기』는 상, 하권이 종결되고 난 후, 부록으로 「海寇劫珥滯外紀」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는 番禺의 廩貢生인 周瑞生이道光15년(1835)에 쓴 것이다.²⁹⁾ 간공 지역에서 벌어진 해적과 향민 간의 치열했던 전투는 『정해분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원영륜이 전투에 참여했던 향민의 숫자, 피해 규모, 사망자 수 등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했다면, 부록의 글을 쓴 주서생은 치열했던 전투 상황과 해적들에게 살해된 향민들의 전투 전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조명하였고, 현재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도 에필로그처럼 실고 있다.³⁰⁾ 노이먼의 영역본은 소옹형과 하경중의 서문 뿐 아니라 원문에 등장하는 광동의 무수한 지명과 산, 바다, 섬의 명칭과 해적들이 사용하는 별명과 은어, 관군의 이름과 직책, 해적단의 독특한 문화와 중국의 관습 등도 주석을 달아 상세히 번역했으며, 설명이 필요한 단어의 경우 Morrison의 증영자전 중 해당 번호를 참고하라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덧붙여 놓았다. 만일 1830년 초판에 주서생의 부록이 있었다면, 노이먼의 영역본에 이 부록을 실지 않았을 리 없다. 무엇

27) 1831년 영인본에서 발췌한 것으로 현대 영어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Karl Friedrich Neumann, *History of the Pirates who Infested the China Sea from 1807 to 1810*, (London:Oriental Translation Fund), pp.95-96.

28) "The work was published in November 1830 at Canton." 「Translator's Preface」, 위의 책, p. xx.

29) 주서생은 字가 夢石으로 番禺 지역의 歲貢生이다.

30) 간공의 전투에서 사망한 周維登, 周秀冰, 楊梅英, 梁功藩 4인의 닛을 기리고, 그들을 추모하는 시도 함께 실고 있다.

보다도 부록은道光15년에 쓴 것이므로 결코 초판에 실릴 수 없었다. 따라서, 1837년에 속간한 『정해분기』는 초판의 내용에 부록을 덧붙인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네 가지 판본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더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정해분기』의 판본과 영역본 연구는 이 책이 중국의 해적사 연구에 있어 차지하는 사료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정해분기』의 내용

책 제목 ‘靖海氛記’의 첫 글자 ‘靖’은 ‘다스리다’, ‘평정하다’는 뜻이다. ‘海氛’은 직역하면 바다의 재앙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바닷길을 어지럽히는 해적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정해분기’는 바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해적들을 평정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관군의 입장에서 해적단의 토벌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야기의 서두는 乾隆56년(1791) 베트남의 반란군과 광둥 해적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중국 해적들의 힘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인 가경13년(1808)부터 가경15년(1810)에 집중된다. 햇수로 따지면 약 3년에 걸친 관군과 해적 간의 전투 기록인 셈이다. 『정해분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 있다.³¹⁾ 편년체의 서술방식으로 마치 그날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는데, 상권은 건륭56년부터 가경14년 8월 29일 해적이 간공 지역을 침략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고, 하권은 가경 14년 9월 13일 해적단과 孫全謀 간의 전투에서 시작해 가경15년 6월 홍기방 두목 장보자가 관군에 협력해 남기방 烏石二를 체포한 공으로 관직을 제수받는 것으로 끝난다. 상권과 하권의 구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일 뿐, 내용에 따른 구분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해분기』 상·하권의 내용을 해적단의 형성과 세력 확장, 분열과 투항이라는 흐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러한 구분은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서술 흐름과 일치할 뿐 아니라, 해적단의 흥망성쇠 및 청 황실의 해상정책을 종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31) 이 책의 전체 구성은 소옹형의 서, 하경중의 서, 범례, 상권, 하권, 부록[海寇劫環滯外紀]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해적연맹의 성립

광동의 해상에 출몰하던 해적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소규모 집단으로 혈연과 지연을 통해 이합집산을 거듭하였기에, 청 조정의 입장에서 그다지 큰 문젯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1791년 이후 해적들은 갑자기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원영륜은 해적들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베트남에서 발생한 띠이선(西山) 반란에 주목했다.³²⁾ 띠이선 반란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동의 해적들에게 공조를 요청하고, 해적들은 그들로부터 관직을 받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배와 무기를 동원해 반란 활동에 뛰어들게 된다. 베트남 반란의 참여는 그동안 사회의 하층민으로 약탈행위를 하던 해적들을 왕조 창업에 공헌하는 인물로 변모시켰고, 이들이 하는 약탈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육지의 권력구조에서 배제된 채 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했던 해적들은 자신들의 장기인 해적활동을 통해 부, 관직, 권력,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에서의 전투는 해적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지만, 그들의 조직력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중국 광동 지역으로 돌아온 해적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만드는 등 본격적인 해상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깃발의 색깔로 소속을 표시했다. 크고 작은 해적단이 있었으나, 가장 규모가 큰 해적단은 6개가 있었고, 그들은 서로 이권을 두고 다투기보다 연맹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해적들은 한 척의 해적선이 독립된 조직으로 움직였기에 이들을 하나의 명령체제로 귀속시키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띠이선 반란에 참여했던 전투 경험은 그들에게 조직력을 심어주었고, 또 해적단의 우두머리들이 이 반란에 함께 참여했던 동지였다는 유대감은 전혀 없는 해적 연맹의 성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³³⁾ 각 해적단의 우두머리와 상징 깃발의 색깔은 다음과 같다.

32) 베트남은 16세기 이후 명목상으로는 레(黎)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쪽 하노이의 쩌(鄭) 씨 가문과 남쪽 후에의 응우옌(阮) 씨 가문의 세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띠이선 반란은 2세기 동안 분열된 나라에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수장 세계의 정치 질서에 변화를 야기했다.

33) 해적 연맹 두목 간 인적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서는 다이엔의 글 참조. 다이엔 머레이, 이영옥 역, 『그들의 바다: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심산, 2003, pp.108-111.

	깃발	두목	활동 지역 ³⁴⁾
1	홍	鄭一	가운데(廣、肇), 동쪽(惠、潮)
2	황	吳知靑(혼명 東海伯)	서쪽(高、廉、雷、瓊、欽、儋、崖、萬)
3	남	麥有金(별칭 烏石二)	서쪽
4	흑	郭婆帶(훗날 郭學顯으로 개명)	가운데, 동쪽
5	백	梁寶(혼명 總兵寶)	가운데, 동쪽
6	청	李尚靑(혼명 蝦蟆養)	서쪽

위의 6개 해적단은 거의 색깔로 소속을 나타냈다. 해적단의 우두머리 대부분 떠이선 반란에 함께 참여했거나, 혈연, 지연, 친분 등으로 엮여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유대 관계 위에 공동 서약서를 작성해 연맹을 맺었고, 소속 해적선마다 필사한 서약서를 배부해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³⁵⁾

6개 해적단은 광동의 해안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동쪽과 가운데는 홍기방, 흑기방, 백기방이, 서쪽은 남기방, 청기방, 황기방의 활동 지역으로 나누어, 서로 간 이권 분쟁의 소지를 막았다. 재밌는 점은 6개 해적단의 지휘 체계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각기 독립된 조직으로 횡적 연대 관계에 있었으나, 비상시에는 5개 해적단이 홍기방의 명령에 따르는 수직적 지휘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지휘 체계는 횡으로는 각 해적단이 실력에 따라 독자적인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했고, 종으로는 명령체계를 일원화해 해적단이 대적하기 힘든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를 기반으로 해적들은 청 조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외딴 섬 곳곳에 자신들의 요새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대규모 선박을 제조하거나, 각종 무기를 만드는 등 점차 힘을 키워나갔다.³⁶⁾

2) 홍기방의 부상과 해상권력의 장악

해적들은 유럽과 중국을 오가는 상선을 약탈하거나, 연해 어촌을 돌며 1년에 두

34) 동쪽은 惠, 潮(혜주부, 조주부)가 있고, 가운데는 廣, 肇(광주부, 조경부)가 있으며, 서쪽은 高, 廉, 雷, 瓊, 欽, 儋, 崖, 萬(고주부, 염주부, 뇌주부·경주부, 애주, 만주)가 있다.

35) 가경 10년에 작성된 광동 해적단 간 서약서에는 鄭流唐이 추가된 7개 해적단 두목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들의 이름으로 각 해적 연맹간 지켜야 할 규약이 적시되어 있고, 모든 해적선에 이 서약서를 보내, 서약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葉誌如, 「乾嘉十年廣東海上武裝公立約單」, 『歷史檔案』, 第4期, 1989, p.19.

36) 해적들은 雷州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엔 瀾洲, 동쪽엔 石甸洲에 본거지를 두었고, 주장 삼각주 근처 大嶼山에도 지휘부를 두었다.

번씩 상납금을 걷기도 했다. 만일 이를 거부하는 마을이 있으면, 본보기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여인들을 납치해 몸값을 받아내곤 했다. 6개 해적단은 활동 거점이 정해져 있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홍기방이다. 떠이선 반란에 참여했을 때, 鄭七은 20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사망 후, 사촌 동생인 鄭一이 지휘권을 넘겨받았고, 정일 사후에는 그의 아내인 鄭一嫂³⁷⁾가 그 뒤를 이었다. 정일수는 비록 여자의 몸이었으나, 죽은 남편 집안의 세력과 정일에게 충성하던 부하들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함으로써 기반을 공고히 했다. 홍기방의 급성장은 정씨 가문의 지지와 정일수의 남다른 지략도 한몫했지만, 바로 張保仔³⁸⁾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보자는 원래 新會 江門 출신으로 평범한 어부의 아들이었으나, 그가 15세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고기잡이를 나섰다가 정일의 해적단에게 납치되어 그의 노예가 되었다. 장보자는 수려한 용모에 총명하고 말재간이 있었다고 한다. 정일이 장보자를 매우 총애했고,³⁹⁾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頭目으로 파격 승진시킨다. 장보자는 자체 규율 3조⁴⁰⁾를 제정해 조직 체계를 정비한다. 그리고 베트남과 일본을 오가던 대형 무장 선박 ‘鵬發’을 마치 ‘트로이의 목마’를 연상케 하는 지략으로 탈취해 홍기방의 首座船으로 삼는다. ‘鵬發’의 거센 화력을 내세운 홍기방은 더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다. 게다가 해적들 사이에서는 바다를 수호하는 三婆神이 장보자를 보호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장보자는 해적단의 우두머리 중 가장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

37) 정일수는 원래 ‘정일의 아내란 뜻이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고유명사처럼 쓰이게 된다.

38) 원래 이름은 장보이다. ‘仔’는 이름 뒤에 붙어 녀석, 놈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39) 장보자는 정일의 양자이자, 동성애 관계로 추정된다. 원문에서는 정일이 장보자를 ‘嬖’했다고 한다. ‘嬖’는 총애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예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동성애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노이먼이 영역본에서 이 단어에 주석을 달기를, “유럽의 언어로는 번역할 수 없다. 아시아에서 행해졌던 악법을 의미한다. (The word pe(8335) cannot be translated in any European language. It means a vice common in Asia.”)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Karl Friedrich Neumann, *History of the Pirates who Infested the China Sea from 1807 to 1810*, (London:Oriental Translation Fund), p.12.

40) 홍기방의 규율 3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기방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육지에 오르는 것을 금한다. 둘째, 약탈한 물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금액을 세고, 공동기금 8할과 공로가 있는 자 2할을 가진다. 셋째, 납치한 부녀자는 절대 겁탈해서는 안 되고, 출신지를 조사한 후 장부에 기입하고 배에 공간을 분리해 거주시킨다. 향민 중 쌀, 술 등의 물건을 접제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익을 계산해 지불하고, 소량이라도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위의 세 가지 규율을 어길 시 귀에 구멍을 뚫어 배마다 조리돌림 한 후, 사형시켰다. 위의 규율은 간단하지만, 엄격한 상벌체계의 운용으로 조직 내 규율을 확립했으며, 공동 기금의 운용과 생필품 보급로의 확보는 홍기방 세력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규율 3조에 대해서는 袁永綸, 「凡例」, 『靖海氛記』, 道光 17年刻本 참조.

고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홍기방을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키워 냈다.

3) 관군과 해적 간의 전투

어촌과 중남해를 오가는 상선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청 조정도 해적들을 제압하기 위해 수군을 파견해 적극적인 공격에 나섰다. 청의 수군과 해적 간의 전투는 가경13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시	내용	관군 피해 규모
가경13년 7월	左翼鎮總兵 林國良이 홍기방 장보자와 孖洲洋에서 벌어진 전투 중 사망	배 3척 파손, 15척 나포
가경13년 8월	參將 林發이 해상에서 해적과 조우. 亞娘鞋에서 전투	배 6척 나포, 수십 명 사망
가경14년 2월	提督 孫全謀가 해적들이 萬山에 집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00여척을 이끌고 출전 손전모가 廣州灣에 있던 홍기방 공격. 정일수가 해적선 이끌고 전투 참여	배 14척 나포
가경14년 6월	左翼鎮總兵 許廷桂가 桅夾에서 양피보, 장보자와 전투 중 사망	배 25척 나포, 다수 익사

위에서 보다시피, 가경 13년과 14년에 걸쳐 청의 수군은 여러 차례 해상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으나, 대부분 참패한다. 물론 해적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수군의 피해가 훨씬 더 컸다. 육지에서의 싸움과 바다에서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 초기 施琅이 이끄는 수군이 대만의 정성공을 무너뜨리긴 했으나, 그렇다고 청의 수군이 해전에 능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시랑도 정성공과 그의 부친 정지룡의 휘하에서 활약했던 해적이었기 때문이다. 해적들은 바다의 지형과 협곡, 소용돌이가 거센 곳이 어딘지 잘 알았고, 계절에 따른 바람의 방향, 세기의 변화 등을 경험으로 터득했다. 그들은 해전에서 수세에 몰리면 인근 島嶼로 숨어 버렸다. 바다는 그들에게 전장이면서, 삶의 터전이기도 했으므로, 그들을 상대로 승리를 쟁취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이윽고 청 조정은 해상전을 통해 해적들을 제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양광총독에 부임한 백령은 해적들과 바다에서 직접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필품을 전달받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기로 한다. 해적들은 농사를 짓거나 기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쌀, 소금, 옷

감, 술, 화약 등의 물품은 약탈한 물건과 교환하던지, 아니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이점을 간파한 백령은 어선의 항해를 금지하고, 소금은 육로로 운반하도록 하며, 어민과 해적들 간의 모든 거래를 금지해, 해적들을 철저히 바다에 고립시키기로 한다.⁴¹⁾ 그러자, 양식의 보급로가 끊긴 해적들은 珠江 삼각지를 따라 내하를 거슬러 올라가 마을을 습격하게 된다. 홍기방과 흑기방은 3갈래로 흩어져 약탈을 감행했는데, 특히 新會, 東莞, 番禺, 順德 등의 피해가 극심했다. 약탈하려는 해적과 마을을 지키려는 향민, 관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비록 마을들의 피해가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향용과 관군들은 서서히 해적들을 방어해 내기 시작한다.

4) 해적 연맹의 와해와 투항

19세기 초, 중국 남부 해적들의 전투력은 조정의 수군보다 더 강했다. 홍기방은 대함선(大艦)을 거느렸고, 유럽의 군함조차 두려움 없이 공격하거나 나포하고, 선원들을 살해하기도 했다. 해적단은 전례 없이 강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서서히 분열의 조짐도 드러내고 있었다.

해적단들이 그동안 연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일을 중심으로 각 방의 우두머리들이 떠이선 반란에 함께 참여했거나, 사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일의 사망 후, 관계가 달라졌다. 정일의 아내 정일수가 홍기방의 최종 지휘권을 가지긴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장보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지위도 높아졌다. 따라서, 관군과 해상전을 벌이거나, 해적단이 연대해서 향촌을 습격할 때, 연맹의 우두머리들은 자신보다 연배가 어린 장보자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이에 서서히 불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났는데, 특히 홍기방과 활동 지역이 겹치는 흑기방 곽파대의 불만이 가장 컸다. 그러다 가경14년 10월 13일, 제독 손전모가 유럽 열강의 함선과 협력해 赤沥角의 大嶼山에 집결해 있던 장보자를 포위하고 맹공격한다. 위급했던 장보자가 潤洲에 있는 곽파대에게 지원 요청을 했으나, 곽파대가 응하지 않는다. 구사일생으로 포위망을 뚫고 도망친 장보자가 곽파대를 만나 이를 추궁하고,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에게 대포를 들이대고 싸움을 벌인다. 이미 수군에게 패한 터라, 전력을 상실한 장보자는 곽파대에게 배 16척과 부하 300여 명을 빼앗겼고, 이 일을 계기로 두 해적단은 원수지간이 된다. 홍기방의 위세가 두려웠던 곽파대는 어쩔 수 없이 관에 투항하는 길을 택한다.

41) 1809년 백령이 시행한 해상 정책은 크게 ‘禁船出洋’과 ‘鹽歸陸運’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해적들을 바다에서 고립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이에 대해서는 陳賢波, 「百齡與嘉慶十四年(1809)廣東籌辦海盜方略」, 『華南師範大學學報』, 第4期, 2017, pp.161-171 참조.

청 조정은 해상공격과 보급로 차단이라는 강경책으로 해적들을 거세게 압박했지만, 투항하는 해적들에게는 여죄를 묻지 않는 포용책을 적용했다. 즉,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방향 정책을 펼친 것이다. 곽과대는 투항 후 조정으로부터 把總직을 제수받는다. 그리고 이 소식은 삼시간에 해적단에 퍼진다.

조정과 유럽 함대의 연합 공격과 보급로 차단으로 위기를 느끼던 홍기방에게 곽과대 사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 정일수와 장보자도 투항을 결심한 것이다. 정일수는 홍기방의 투항 의지를 조정에 흘리고, 직접 해적 부녀자들을 이끌고 香山의 芙蓉沙으로 가서 양광총독과 협상을 벌인다. 홍기방은 조정과 투항 조건을 성공적으로 조율한다. 배와 무기는 헌납하고, 부하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향으로 보내거나 관군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장보자는 조정의 관원이 되어, 수군을 이끌고 해적 토벌에 나서고, 단시간에 남은 해적단들을 섬멸한다.

4. 『정해분기』의 특징과 의의

1) 역사기록의 補完

작가 원영륜은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라는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썼다. 이러한 저술 목적과 정신은 책의 범례에도 잘 드러난다. 작가는 사건은 반드시 정확한지를 찾아보고, 언사는 반드시 진위 여부를 고증했으므로, 거짓을 꾸며내거나 사건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소설가 부류의 글과 다르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다. 또한 후세 지방지를 편찬하는 이가 이 책을 보고 인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기록했다고 하니, 비록 조정의 봉록을 받는 史官은 아니었으나, 사관과 같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저술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⁴²⁾ 그리고 역사의 기록물로서 이 책이 가지는 공신력은 동시대 관방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道光18년(1838)에 간행된 『廣東海防彙覽』의 일부 내용을 보자.

林國良은 孖洲洋에서 전사했는데, 자주양은 丫洲洋을 말한다. 『정해분기』에 임국량

42) 범례는 총 6가지인데, 그 중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항목에서 기록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一. 是編專取耳聞目見、眾所共悉者、逐節記敘、以備異日軒輊之採。若得自道塗之口、聞見未真者、概不敢採入。一. 是編表揚忠烈為多、凡忠臣、烈士、節婦、義夫、務必詳記里居、俾其人其事、炳耀今古。使後之修誌者、到彼訪聞、得以信而有徵、確而可據。一. 古人記事、不尚繁詞、務求簡括。茲編記敘、雖似瑣碎、然謹依月日、次第編入、事必求其確、語必考其真。誠不敢妄加粉飾、稍涉張皇、亦不敢強為串合、以近於小說家之流。” 袁永綸, 『靖海氛記』, 道光17年刻本, p.9a

의 전함이 포위당했을 때, ‘어선 10여 척이 있어, 거포로 (임국량을) 돕고자 했으나, 향산 지현 彭愨가 어선들이 해적과 한통속일 것을 의심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보건대, 孖洲洋 혹은 丫洲洋은 향산현의 관할범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향산현 동쪽 언덕, 淇澳島의 북쪽, 橫門 남쪽의 바다에 丫州라 불리는 섬이 있는데, 孖洲洋 혹은 丫洲洋은 아마도 丫洲島 인근의 바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³⁾

위의 책은 양광총독 盧坤의 이름으로 편찬된 관방의 기록으로, 『정해분기』보다 8년 늦게 출간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임국량이 전사한 孖洲洋의 명칭과 위치를 추측하면서, 『정해분기』의 기록을 그 논거로 인용하고 있다. 광서연간에 간행된 『광주부지』 권91 ‘예문략’에 『정해분기』를 史類로 분류한 것 또한 관방에서 이 책을 역사서로 평가했음을 방증한다.

지방의 역사를 기록한 사료로써 『정해분기』의 가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다루지 않은 지역 역사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경14년 6월 허정계가 장보자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건에 대해, 『淸史稿』는 허정계가 “외양에서 해적을 소탕하려고 그들을 포위했다. 장보자가 대규모 지원부대를 끌고 왔다. 관군은 적고 해적은 많은지라, 정계가 죽었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⁴⁴⁾ 반면에 『정해분기』는 양 진영의 전투 전후 상황을 매우 자세히 기술한다. 허정계가 수군을 주둔시킨 위치, 며칠 연이어 큰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했던 바다의 기상 조건, 200척에 달하는 해적선이 배에 가득 깃발을 꽂고 물러드는 광경과 그것을 보고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한 관군, 서로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배를 가까이 대고 단병접전을 벌이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마침내 해적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자결한 허정계, 그리고 해적에게 나포된 관선의 숫자까지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둘째는 관방 기록의 대조 자료로 가치를 가진다. 광동 연해 해적에 관한 기록은 『廣州府志』, 『新會縣志』 등 해적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지방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에 대한 관방의 기록과 『정해분기』의 기록을 비교 분석한다면, 더 많은 자료와 다양한 시각을 확보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 실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고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43) “林國良戰死於孖洲洋, 孖洲洋即丫洲洋. 『淸海氛記』云: 當林國良艦隊被包圍之際, 「有漁十餘隻, 欲請巨炮相助, 香山知縣彭愨疑其與賊合, 不許, 可見孖洲洋或丫洲洋應該屬於香山縣管轄範圍, 香山縣東岸、淇澳島以北、橫門以南的海面, 有一島名丫州, 孖洲洋或丫州洋可能就是丫洲島附近之海面.” 『정해분기』의 원문과 비교하면, 딱 1곳이 다르다. 밑줄 친 ‘漁’는 ‘漁船’로 표기되어 있다. [淸] 盧坤 等輯, 『廣東海防彙覽』, 卷42, pp.10b-11a. 그 외, 본문에서 등장하는 향산 지현 彭愨은 彭昭麟의 오기이다. 『淸海氛記』에 이름이 잘못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이 책을 인용한 문헌에서 동일한 오기가 발견된다.

44) 趙爾巽 主編, 「黃標傳」, 『淸史稿』卷350, 中華書局, 1977, p.11262.

있을 것이다.

2) 기전체 문학 전통의 계승

『정해분기』는 기본적으로 광둥 지역 해적 연맹의 탄생, 성장, 분열, 투항의 과정을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사건이 아닌 인물에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기전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홍기방 해적 장보자에 관한 기록이 그러하다. 원영륜은 장보자에 관해 서술할 때 시간의 순서를 거슬러 그가 해적이 된 배경과 홍기방에서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소개한다. 만일 『정해분기』에서 장보자에 관한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엮으면, 한 편의 列傳이 될 만큼 짜임새 있는 서사구조와 인물 형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원래 장보자는 강문의 어촌에서 자라 부친과 함께 고기 잡던 평범한 어부였으나, 정일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해적이 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19세기 중남해 해적의 입단 경로 중 하나를 알 수 있는데, 납치된 피해자가 해적이 되어 다시 향민을 납치하는 가해자로 변한 것이다. 해적단에서 장보자는 수려한 용모와 뛰어난 두뇌로 두목 정일의 총애를 받고, 단기간에 파격 승진한다. 그리고 정일 사후에는 그의 미망인 정일수의 지휘 아래, 마침내 홍기방 권력의 정점에 오른다.⁴⁵⁾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홍기방을 이끌고 조정에 투항한 장보자는 이름을 張寶로 개명하고, 청의 水師(수군)로 신분이 바뀐다. 그리고 황제의 칙령에 따라 청의 수군을 이끌고 청, 황, 남기방 토벌에 나선다. 장보자는 해적단의 근거지, 각 기방의 병력, 보급로, 전투방식 등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 결과 단시간에 잔여 해적단의 우두머리를 체포하고, 그 부하들을 해산시킨다. 그리고 장보자는 해적 토벌의 공을 인정받아 마침내 3품 무관직에 오른다.⁴⁶⁾ 어부에서 해적으로, 해적단 통치체계의 말단에서 정점까지 오른 후, 해적에서 다시 해군으로 바뀌는 그의 신분 변화는 참으로 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장보자의 생애는 원영륜의 붓끝에서 신화적 색채를 덧입는다.

혜주에 삼파신을 모시는 사원이 있다.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자주 신비한 능력을 드러냈기에, 해적선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다. 조금이라도 태만하면 재앙이 닥쳤기에, 해적들이 매우 성실히 섬겼다. 어느 날, 각 연맹의 두목들이 일렬로 서서 제를 올리고, 그 신상을 모시고 가려 했다. 밤낮으로 물었으나, 조금도

45) 장보자는 훗날 정일수와 결혼해 1남 1녀를 낳는다. 『정해분기』는 두 사람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장보자가 정일수를 극진히 섬겼다고 서술하였다.

46) 장보자는 가경24년, 복건 閩安의 副將의 지위까지 오른다.

움직이지 않았다. 장보가 손을 살짝 갖다 대자 곧 신상이 움직였고, 마침내 신상을 모시고 배로 돌아갈 수 있었다. 마치 바람이 배까지 배웅해 주는 듯했다. 무릇 그곳을 오가고 출몰하거나, 해적질과 전투에 임할 때 모두 (삼파)신의 결정에 따랐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길흉이 모두 들어맞았다.⁴⁷⁾

삼파신은 광동의 해안지역에서 믿었던 바다의 수호신으로 인간의 몸에 빙의하거나, 길흉을 예언하는 샤머니즘적 요소를 띠고 있었다.⁴⁸⁾ 당시 해적들은 삼파신이 장보자를 보호하고, 그의 물음마다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후기방의 광과대가 장보자와 싸운 후, 조정에 투항서를 보낸 이유 중 하나가 해적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하들이 장보자가 속한 홍기방은 삼파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해낼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군과의 전투에서 공격과 후퇴를 결정할 때 장보자는 삼파신에게 물어 결정하고, 그 결정은 어김없이 들어맞는다. 위의 이야기는 작가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당시 해적들 사이에 삼파신이 장보자를 보호한다는 소문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마천이 『史記·高祖本紀』에서 劉邦이 술에 취하면 그의 몸 위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가, 유방이 赤帝의 아들이라는 소문, 그리고 유방의 머리 위 하늘에는 언제나 상서로운 구름이 떠 있다는 신화적 색채를 그대로 기록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⁴⁹⁾

사마천과 원영륜이 각각 장보자와 유방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위에서 언급한 삼파신이나 상서로운 구름 등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쓴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허구성은 ‘지어낸 말’이나 ‘거짓’이라는 개념보다, 장보자나 유방이라는 인물이 해적들 사이에서 갖은 카리스마와 영웅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택한 전략적 글쓰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원영륜의 붓끝에서 장보자는 해적단의 우두머리에서 조정의 수군으로 성공적인 신분 변화를 이룬 영웅적 인물로 탄생하였다. 그런 점

47) 惠州有廟曰三婆神者, 在海旁, 數著靈異, 賊舟過, 必虔祀, 稍不盡誠, 禍咎立至, 賊事之甚謹. 一日, 各頭領齊詣羅拜, 欲捧其像以歸, 俾朝夕求問, 皆持之不動, 張保一扶(U7a)而起, 遂奉以歸舟, 如有風送到船者. 凡往來出沒, 搶劫打仗, 皆取決於神. 每有祈禱, 休咎悉驗. pp.6b-7a.

48) 安樂博 (Robert J. Antony), 「‘三婆’是誰? 淺談曾盛行在中國南海的水神」, 『絲路和弦: 全球化視野下的中國航海歷史與文化』2019. p.20.

49) 劉邦이 술김에 길을 막고 있던 큰 뱀을 칼로 베는데, 한 노파가 뱀이 죽은 자리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아들은 白帝의 아들인데, 뱀으로 변해 있다가 방금 赤帝의 아들에게 참살당했다고 이야기한다. 그 외, 그 후, 사람들은 유방을 적제의 아들이라 부르며, 그를 더욱 경외하게 된다. 그 외, 유방의 아내 呂雉가 유방이 어디에 피신해 있든 곧잘 찾아냈는데, 여치에게 그 비법을 물으니, 유방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늘 위에 상서로운 구름이 있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찾아낼 수 있다고 대답한다. 위의 이야기들은 司馬遷의 『史記·高祖本紀』편 참조.

에서 보면, 『정해분기』는 사마천이 본기와 열전을 썼던 기전체 문학의 전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관군과 해적, 그 경계의 시선

원영륜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가 해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해분기』에서 작가가 1인칭 ‘予’나 ‘吾’를 사용해 이야기 전면에 등장하는 부분을 일부 발췌해 살펴보자.

① 내 벗 유격 임도재, 파총 호작당, 황영양이 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임도재와 호작당은 죽고, 오직 황영양만 포화를 무릅쓰고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나왔고,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② 28일 새벽, 해적들이 紫泥에 정박해, 우리의 師船에 오르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沙亭에 주둔하는 것을 포기했다. 마침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내가 中山에 올라 바라보니, 저 멀리 (해적의) 깃발이 장벽처럼 바다에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살기등등한 것이 참으로 비참했다.⁵⁰⁾

①을 보면, 작가는 자신의 벗인 유격 임도재, 파총 호작당이 가경13년 7월 임국량과 장보자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말한다. 유격은 청대 지방 무관으로 종3품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이고, 파총은 정7품에 해당한다. 비록 작가는 무명의 지식인이었으나, 그와 교유관계에 있는 이들은 청 조정의 무관이였다. 그리고 ②을 보면, 가경14년 8월 28일, 유격 林孫이 사선 40척을 이끌고 순하하다가 장보자가 이끄는 홍기방과 마주친다. 해적의 깃발들이 마치 만리장성의 장벽처럼 길게 늘어선 광경을 마주했을 때, 작가는 중과부적의 상황에 두려움과 비참함을 느꼈다. 위의 두 내용을 보면, 작가는 관군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 분명하다. 이 책의 제목이 ‘정해분기’인 것을 봐도 작가가 해적들을 어떤 시각에서 봤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작가가 비록 관군에 속하긴 했으나, 양측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재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작가는 관군과 해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려고 노력한다. 작가는 관군을 칭송하고, 해적을 폄하하는 편중된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 그가 기록 속 관군의 모습을 보면, 허정계나 梁濶처럼 끝까지 용맹하게 싸우다 죽음을 택한 무관도 있으나, 별떼처럼 몰려드는

50) ① 吾友遊擊林道材、把總胡爵堂、黃英揚與其役。林與胡死焉，黃冒烟突圍奔回。為余述之。② 二十八晨，賊下紫泥，欲躡我師，不及。拋駐沙亭。時秋風初起，予登中山望之，見檣旗環列海面，戰氣森森，景象慘肅。袁永綸，『靖海氛記』，道光17年刻本，p.9a과 p.14b.

해적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임손이나, 동료들 질투해 수군의 패배를 야기하는 향산 지현 彭愨⁵¹⁾ 같은 사람도 있다. 해적도 마찬가지이다. 손목을 자르고, 생니를 뽑아 거꾸로 매달고, 온 마을에 불을 지르는 해적들의 약탈 과정을 통해 그들의 잔인함을 서술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적단을 이끄는 정일수나 장보자의 카리스마나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해적의 모습 또한 가감 없이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경14년 2월, 제독 손전모와 해적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서 해적들은 그야말로 열세였다. 100척의 사선을 물고 해적선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싸 점점 포위망을 좁혀나가며 불화살을 쏘았다. 이 싸움에서 엄청난 수의 해적들이 죽거나 생포되었다. 패색이 짙은 그 싸움에서 작가는 끝까지 배를 지키려고 관군을 향해 칼을 겨누는 이름 없는 여해적의 용맹함과 그녀의 최후를 기록한다. 또 양광총독 백령에게 자신들의 투항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홀로 해적 여인들을 이끌고 인질을 자처한 정일수의 지략과 담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작가는 관군의 장단점과 해군의 장단점을 균형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연구자 중 혹자는 원영륜이 해적 소속의 지식인이라고 추정하고, 혹자는 양광총독 백령의 막우라고 추정하기도 한다.⁵²⁾ 이는 『정해분기』가 그만큼 관군과 해적 사이의 경계에서 그들의 전투를 중립적인 시선으로 담아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5. 나오며

『정해분기』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중국 남부 해상에 창궐하던 해적을 토벌한 기록이다. 중국의 역사 사료 중 『정해분기』만큼 해적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문헌은 드물다. 봉건 왕조 시대에 해적은 소탕해야 할 대상이었고, 조정의 힘으로 교화시키기 힘든 악의 무리였다. 해적들은 육지의 터전을 잃고 바다로 내몰린 서발탄들로 국가 행정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바다를 떠돌며 약탈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해적들은 자신들에 관한 기록을 남길 수 없었고, 관방의 기록에서 해적은 대부분 폭력과 잔인함, 천박함과 교활함을 입은 부정적 형상으로 남았다.

51) 본문에는 향산 지현 彭愨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이는 彭昭麟의 오기이다.

52) 羅香林은 「1842年以前之香港及其對外交通」에서 작가 원영륜이 흑기방 광과대 혹은 홍기방 장보자 소속 인물이라고 하고, 葉靈鳳은 백령의 막우라고 추정한다. 작가가 해적 소속이라는 추정은 劉平, 「清中葉廣東海盜問題探索」, 『清史研究』, 第1期, 1998, p.49. 주석51번에서 재인용.

원영륜의 『정해분기』는 광동 연해 해적들의 생활상을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헌이다. 게다가 작가는 관군과 해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중립적인 시선으로 그들에 관해 기록하려 노력했다. 원영륜의 기록으로 인해, 우리는 가경연간 광동 연해 해적들이 입단하게 되는 경로, 해적단의 종류, 해적단 규모, 보유 선박과 무기, 활동 지역, 연맹 조직도, 지휘 체계, 내부 규율, 재산 분배 규칙, 성문화, 근거리와 원거리 전투방식, 요새의 위치, 해적이 믿는 종교 등, 해적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광동 연해 해적단의 흥망성쇠라는 씨실 위에 청 왕조를 둘러싼 베트남, 서구 열강의 정치적 역학관계, 청나라 수군의 전력, 해상정책의 변화, 해적의 招撫방식 등을 날실로 엮어, 당시의 시대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정해분기』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오히려 서양의 사회학자들이 먼저 『정해분기』의 내용에 주목해 중국의 해적 연구나 세계 해적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해분기』는 작가 연구나 문헌연구, 1830년대 중문과 영역본의 비교, 정사와의 비교, 동아시아 해적의 비교, 해적 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정해분기』가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바라며, 다양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경아, 『청대 막우와 소설』, 세종출판사, 2015, pp.13-14.
- 다이앤 머레이, 이영옥 역, 『그들의 바다: 남부 중국의 해적, 1790-1810』, 심산, 2003.
- 보르헤스, 황병하 역, 『불한당들의 세계사』, 민음사, 1994.
- [清] 黎誌添·李 靜, 『廣州府道教廟宇碑刻集釋上集』(40-5), 中華書局(香港), 2013, p.691.
- [清] 盧 坤 等輯, 『廣東海防彙覽』(卷42), pp.10b-11a.
- [清] 李光廷·史 澄 纂, 蘇佩訓·戴肇辰 修, 『廣州府志·藝文略』(卷91), 光緒5年(1881)刻本, p.2b.
- [清] 樂 鈞, 「重刻耳食錄序」, 『耳食錄』, 齊魯書社, 2004, p.3.
- [清] 袁永綸, 『靖海氛記』, 道光17年刻本.
- [清] 趙爾巽 主編, 『黃標傳』, 『清史稿』(卷350), 中華書局, 1977, p.11262.
- [清] 許奉恩, 『里乘』, 齊魯書社, 1988, p.30, p.55.
- 劉 平·趙月星, 「從『靖海氛記』看嘉慶廣東海盜的興衰」, 『國家航海』, 第1期, 2016, pp.36-51.
- 劉 平, 「清中葉廣東海盜問題探索」, 『清史研究』, 第1期, 1998, p.49.
- 穆黛安, 劉平譯, 『華南海盜 1790-1810』,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
- 蕭國健·荀永堅, 「[清]袁永綸『靖海氛記』箋註專號」, 『田野與文獻: 華南研究資料中心通訊』, 第46期, 2007, pp.6-7.
- 葉靈鳳, 「張保仔的傳說和真相」, 『葉靈鳳文集』(第3卷), p.535, p.583.
- 葉誌如, 「乾嘉十年廣東海上武裝公立約單」, 『歷史檔案』, 第4期, 1989, p.19.
- 英格麗德·呂克特 著, 劉梅 譯, 「“稀有而價值連城的中文文獻資料”——巴格利亞國家圖書館中文書籍館藏的創建者: 卡爾·弗裏德里希·諾依曼」, 『國際漢學』, 第2期, 2012, pp.132-156.
- 王 慧, 「現存誌料、採訪冊、調查記等文獻概述」, 『學術探索』, 第7期, 2014, pp.107-108.
- 魏白蒂(Betty Peh-T'i Wei), 「『四庫全書』纂修外一章: 阮元(1764-1849)如何提掇與促進嘉道時代的學術研究」, 『兩岸四庫學——第一屆中國文獻學學術研討會論文集』, 臺灣學生書局, 1998, p.39.
- 陳賢波, 「百齡與嘉慶十四年(1809)廣東籌辦海盜方略」, 『華南師範大學學報』, 第4期, 2017, pp.161-171.
- Dian H. Murray, *Pirates of the South China coast, 1790-1810*, Stan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87.
- Elijah Coleman Bridgman, “*THE CHINESE REPOSITORY*”(VOL. XVIII), Canton: Printed for the proprietors, p.414.
- Karl Friedrich Neumann, 「Translator’s Preface」, *History of the Pirates who Infested the China Sea from 1807 to 1810*, (London:Oriental Translation Fund), p.xx.
- 廣東省人民政府 www.gd.gov.cn/gd/gk/lnwh/lnzy/200709/t20070925_21066.htm [2021.2.19]
- 廣東文化網 www.gdwh.com.cn/lnwh/2008/0825/article_82.html [2021.2.19]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靖海氛記》, 袁永綸, 海賊, 張保仔, 鄭一嫂, 廣東				
	영문	<i>Jing Hai Fun Ji</i> , Yuan Yong Lun, Pirate, Cheung Po Tsai, Ching Shih, Canton				
<p>Record of the 19th Century Battles between Pirates and Government Forces in the South China Sea : Focusing on Yuan Yong Lun (袁永綸)'s <i>Jing Hai Fun Ji</i> (靖海氛記) Kim, Kyung-A</p> <p><i>Jing Hai Fun Ji</i> (靖海氛記) was written by Chinese writer Yuan Yong Lun. This book is a record of destroying pirates who were active in southern China from the late 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Very few Chinese historical records contain various contents about pirates, such as <i>Jing Hai Fun Ji</i> (靖海氛記).</p> <p>However, the book disappeared from China after it was first published in 1830 in Guangdong. It was not until 2007 that the edition was discovered at the British Library. About 13 years have passed since <i>Jing Hai Fun Ji</i> was introduced,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it.</p> <p>This paper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The first is the introduction. The second is the life of writer Yuan Yong-lun (袁永綸), and the Chinese and English translations of <i>Jing Hai Fun Ji</i> (靖海氛記). Currently, there are two Chinese and two English versions. Thirdly, the content of <i>Jing Hai Fun Ji</i> (靖海氛記)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pirate corps' formation, expansion of power, division and surrender. Fourth,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i>Jing Hai Fun Ji</i> (靖海氛記) based on content analysis. The fifth is the conclusion.</p> <p>Through this paper, I hope that <i>Jing Hai Fun Ji</i> (靖海氛記) will raise the interest of domestic researchers and look forward to various follow-up studies.</p>						
저 자	김경아 / 金敬娥 / Kim, Kyung-A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02.20	심 사 일	2021.02.25	게재확정일	2021.03.15